

*
안 비 화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소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소통의 개념

2. 마틴 부버의 '나-너의 관계(I-Thou Relationship)' 사상

III. 합창무용의 개념

1. 합창무용의 개념

2. 합창무용의 기원

IV. 합창무용과 소통

1. 합창무용과 마틴부버의 '나-너(I-Thou) 관계

2. 합창무용교육과 소통 능력

V. 결론

참고문헌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안무자

논문투고일 : 2015.04.30.

심사일 : 2015.05.30.

게재확정일 : 2015.06.5.

A study on chorus dance education for social communication

Ahn, Bi-hw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introduce Chorus Dance, which is the dance with chorus together, to study the value of Chorus Dance education as one of the culture & arts educations for improving social communication ability. This study based on the value communication of Chorus Dance education on the ideology of 'I-though relationship' of Martin Buber and investigated subjective and experiential phenomena of the trainees in Chorus Dance education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the interview on A-City Children's Choru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children get to improve 'self-expression ability', 'understanding for others,' and 'mutual consensus ability' for thought, opinion, and emotion through Chorus Dance education. In addition, this signified that it was helpful in the personality formation for the real humane relationship of each individual.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culture & arts education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in regard to various social members and classes from national level for our society to stand upright as a healthy community of smooth communication, and Chorus Dance education assumes that palys role significantly.

key words > chorus dance, communication, culture & arts education.

주요어 > 합창무용, 소통, 문화예술교육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역으로 보면 단절의 시대임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그 과정에서 분배의 불균형 및 빠른 경제적 성장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사회를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을 도구화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없는 '단절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또한 글로벌한 스케일의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들과의 소통의 시간과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현재 무엇보다 이웃 간의 소통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지역 및 소득계층 간의 문제를 넘어, 학교 및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소통의 주체와 연령층, 성별, 갈등 유발의 주요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격체로서, 그리고 소통과 교감능력을 갖춘 보다 성숙한 이웃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소통 및 교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며, 국가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소통과 교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 사회학자들은 예술교육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모든 예술은 사람들의 삶(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동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교감으로서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고대예술은 장르의 구분 없이 하나의 융합된 형태를 띠었으나 르네상스 이후 점차 장르별로 분리되며 예술은 대중의 삶과 유리되어 소수의 사치품으로 전락되었고 예술의 본질인 소통의 기능이 사라져왔다. 그러나 다시금 지금의 시대는 예술이 고고한 천상의 세계에서 내려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의 단절'을 치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예술들이 융합적 형태로 대중들의 삶 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무용 또한 지금껏 공연예술로서의 예술적 가치만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고, 이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시야를 넓혀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차원의 가치를 살펴보는 경향이 무용계에 생기고 있다. 이는 무용분야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술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무용분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에 본 연구자는 18년간의 합창안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소통 및 교감능력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하나로써 무용과 합창이 함께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합창무용교육’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합창무용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소통의 개념과 합창무용교육에서의 소통으로서의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Buber, M의 ‘나-너의 관계’ 사상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한다. 셋째, ‘어떻게 합창무용교육이 소통 및 교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마틴 부버의 ‘나-너 관계’ 사상에 입각하여 합창무용교육이 행해지는 교육현장에서의 수행자들의 주관적·체험적 현상들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는 ‘A 소년소녀합창단’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Ⅱ. 소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소통의 개념

먼저 소통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다.

권은정(1996:6)은 다른 사람과의 정보 즉 생각, 의견, 사실, 감정을 교환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최홍규

(2000:4)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명희(1988:16)는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소통의 개념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생각, 의견, 감정들에 대한 ‘자기 표현’과 ‘타인에 대한 이해’, ‘상호 교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마틴 부버의 ‘나-너의 관계(I-Thou Relationship)’ 사상

Buber, M의 ‘나-너의 관계’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바람직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소통과 교감을 얘기하고 있다. 부버는 인간세계의 두 가지 근본 질서를 ‘나-너의 관계(I-Thou Relationship)’에 바탕을 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 공동체와 ‘나-그것의 관계(I-It Relationship)’에 바탕을 둔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로 구분하였다. 그는 인간을 고립된 실존으로서가 아니라 만나고 대화하는 실존으로 파악하면서, <나-너>에 바탕을 둔 사회가 진정한 사회라고 보았다(강선보, 2003:82).

부버가 제시한 ‘나-너’와 ‘나-그것’이라는 두 개의 근원어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만남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버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 가는 만남은 이 두 개의 근원어 속에 모두 포함되며, 부버는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없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학적 의미의 만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근원어는 낱개의 말이 아니고 짝말로 이루어진다. 근원어의 하나는 ‘나-너’의 짝말이고 또, 근원어 ‘나-그것’의 짝말이다. 따라서 근원어 ‘나-너’의 ‘나-그것’의 ‘나’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중 근원어 ‘나-너’는 ‘관계의 세계’를 세운다(Buber, M, 1977:12). ‘나-너’와 ‘나-그것’은 비록 짝을 지어 말해지지만 결국 하나의 말, 짝말이면서 하나의 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너’라고 하거나 ‘그것’이라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너’라고 할 때 ‘너’라는 말 속에는 너를

인식한 ‘나’ 또한 함께 있으므로 ‘나-너’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나-그것’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너’라는 것은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해질 수 있다. 온 존재에로 모아지거나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1977:21).

‘너’가 있음으로 ‘나’가 존재하는, ‘너’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나’도 존재하게 되는 ‘너’와 ‘나’가 실존하는 존재로서 관계를 맺을 때 만남은 이루어지며 만남에 의해 소통의 삶이 이룩된다. 이때 ‘나’와 ‘너’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타자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타자의 본질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부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너’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구체적인 삶을 향해 삶의 행위를 취해야만 한다. 부버가 말하듯이 진정한 관계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성립될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온 존재를 기울이는 데에는 대화 뿐 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태도, 몸짓, 억양, 노래, 분위기, 옷차림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 격려, 친밀감 등의 내적 공감의 더욱 쉽게 교류되기도 있다.

Ⅲ. 합창무용의 개념

1. 합창무용의 개념

합창무용의 정의는 합창에서의 무용을 이야기하며, 이는 곧 합창을 하면서 함께 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창무용은 서로간의 소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를 조화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 체험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합창무용교육은 합창곡의 내용과 곡의 감성에 따른 다양한 무용과 퍼포먼스를 가르치며 공연을 하는 융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중고등학교의 경우 동아리 활동으로써 ‘쇼 과이어 show choir’라는 장르가 존재하며, 무용과 합창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되고 다양한 경연대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¹⁾**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합창단에서 무용과 합창을 함께 교육하고, 공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술의 형태도 변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합창무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합창무용의 기원

합창을 의미하는 음악 용어인 ‘코러스(chorus)’는 군무를 뜻하는 ‘코러스(choros)’로부터 유래된 용어로서, 단순히 노래만 하는 합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춤과 노래가 있는 통합적인 구성에 대한 지칭이었다. 따라서 합창무용의 기원은 코러스에서 찾을 수 있다. 코러스의 기원은 연극에서 유래되었으며, 먼저 연극의 기원을 **Aristoteles**의 ‘시학’과 **Harrison, J.**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제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학에서 연극의 기원을 원시적인 본능, 즉 모방 본능과 타인에 의하여 모방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본능에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은 어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들처럼 행동하는 가를 알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 이 본성 때문에 모방된 것을 봄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다(주희, 2007:6).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가 생기기 이전 인간은 손짓, 몸짓, 발짓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후손들이 보고 익힘으로써 모방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방적 행동이 연극적 행동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극의 기원을 하리슨과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제의’에서 비롯됨을 들 수 있다(김주태, 1990:11). 지금도 제의를 지낼 때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행위, 즉 제스처 **gesture**이다 (Germaine P, 1991:68). 이러한 움직임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연결하고 대립과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적 대립의 표현이 연극의 요소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모든 예술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의를 거치면서 연극과, 연극에서의 코러스가 뚜렷

¹⁾ 우리나라에는 국립합창단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성인프로합창단,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실버합창단, 초·중·고 학교 합창단 등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고, 노래와 무용을 함께 교육받고 선보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안비화, 2011: 4).

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후 그리스 시대의 연극에서의 코러스는 극의 첫머리에 등장하면, 극이 끝날 때까지 무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줄거리가 끝나는 대목마다 전원이 노래와 춤을 벌이고, 또 줄거리가 진행되는 중에도 코러스들이 장의 극중 인물과 노래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연극 전편을 통해서 압도적인 개입을 했다. 이는 집단적이었으며, 언어보다는 노래와 춤을 통하여 관객에게 극의 색깔 및 무대의 통일성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등, 극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관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코러스의 기원을 살펴본 결과, 비록 현재는 코러스는 노래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본래의 모습은 노래뿐 아니라 춤이 함께 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Ⅳ. 합창무용과 소통

일찍이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들에서는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로서는, 공연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효과, 문화 활동 등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 그리고 사회소통으로서의 효과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183).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소통으로서의 효과에 주목하여 합창무용교육이 어떻게 소통 및 교감 능력 향상에 역할을 하는지를, 부버의 ‘나-너(I-Thou)의 관계’에 입각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합창무용과 마틴부버의 ‘나-너(I-Thou) 관계’

부버의 ‘나-너(I-Thou)의 관계’의 형성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 직접적이고 상호적이고 현재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버의 ‘나-너 관계’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합창무용에서의 소통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합창무용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매개로 하는 예술 활동이다. 합창무용에서는 살아있는 정신과 신체가 합일된 주체로서의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 합창무용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는 아래의 같이 네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 합창무용을 통한 소통관계

- 합창무용을 하는 구성원간의 소통
- 합창무용 지도자와 그것을 수행하는 집단 행위자간의 소통
- 합창단원과 관객과의 소통
- 마지막으로 행위자와 예술(음악, 무용)간의 소통

이 중 부버의 ‘나-너(I-Thou)의 관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통을 향상시키는 관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첫 번째인 ‘합창무용을 하는 구성원간의 소통’이다. 합창무용을 하면서 수행자 간에는 그들만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느끼며 서로가 소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며, 움직임을 통하여 의미를 표출 시키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가장 원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낸다. 합창무용에서의 수행자와 수행자 간의 정신과 신체적 교감이 이루어진 관계에서의 ‘나-너의 관계’는 상호간에 온 존재를 기울여 만들어가는 참된 관계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합창무용을 통하여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소통의 장을 이루는 것이다.

합창무용은 합창과 함께하는 특성을 갖는 무용이다. 무용과 함께 행해지는 합창 기본적으로 음을 구현해내는 서로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조화와 통일,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연주해 내는 것이다. 합창무용에서는 합창과의 조화는 물론 동작, 시각적인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하여 개개인의 표현력은 물론 여러 사람이 어떤 한 가지 표현을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원이 같은 움직임을 동시에 하는 것에서 노래와 춤에 수반된 정서나 감흥을 교환하면서 서로간의 미적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경험이 되며 서로간의 소통을 형성하는 경험으로써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합창무용은 교육과정 및 공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세계에 표출하는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훈련을 하고, 동료 간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경험을 하며,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는 협력을 통하여 타인과의 다양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구성원간의 차이가 허물어지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상호간의 친밀감 형성으로 빠르게 발전한다. 즉 부버가 말하는 진정한 ‘나-너의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합창무용수행의 장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 합창무용교육과 소통 능력

앞서 살펴본 소통의 개념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표현’과 ‘타인에 대한 이해’, ‘상호 교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합창무용교육과정을 직접 참여·관찰하고 수행자들과의 그룹 심층 면담을 통해 바라본 합창무용교육과 소통의 관계성과, 소통의 주요 키워드에 따른 합창무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합창무용은 자기를 여는 표현이다

(s · b)

제가 원래 소심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힘들었거든요~그런데 안무를 하면 서부터 아이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발표도 잘하게 되고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요.

(h · n)

제가 (s · b)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소극적이고 얌전했었는데 (s · b)가 이제는 많이 적극적이 되었어요.

(c · h)

원래 저도 노래만 부를 때는 쑥스럽고 그랬는데요 쑥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s · b)

합창단 생활하면서 말하는 것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휘력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신기해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졌어요.

(c · h)

제가 예전에 뮤지컬 했던 경험이 있어요~뮤지컬 공연을 2번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때는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 여름 냇가 안무할 때는 여름 냇가 안무가 굉장히 활발하고 기분 좋고 어린아이들 같은 상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를 같이해서 웃고 하면서 하니까 더 감정 이입이 잘되는 것 같아요.

(s · b)

7~8살 때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에서 무대에 서 본적이 있어요. ~ 그때 나갔을 때 춤만 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맨날 틀리고 감정 몰입도 안 되고 혼나고 울고 그랬었는데요. 합창안무를 하면서는 갑자기 어 이거 재밌네~, 이 부분은 더 신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표현에 감정도 실을 수 있게 되고 춤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m · k)

춤만 하나만 배우거나 노래만 하거나 하는 것보다 춤과 노래를 같이 배우는 것이 좋아요.
같이 배우는 것이 박자감 리듬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h · n)

춤만 하면 노래를 못하게 되고 노래만 하면 춤을 못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 둘 다 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m · k)

춤과 노래 다 호흡이 중요한데 이것을 같이 하면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h · n)

춤이랑 노래랑 같이하면 감정도 잘 잡히고 신나면은 신나고 슬프면은 슬픈 것처럼 몸짓을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c · h)

노래를 하면서 노래 가사 내용을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이 더 잘되거든요 가사를 떠올리면 노래를 하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되거든요~ 그거랑 같이 노래랑 춤을 추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되요.

(m · k)

노래하고 춤추고 표현하고 나면 기분이 뿌듯해요.

» 합창무용을 통해 아이들은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합창무용교육이 갖고 있는 통합적 예술교육으로서의 특성이 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합창무용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다

(s · b)

안무연습하면서 선생님 하고도 엄청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연습할 때 많이 혼내도 혼나면서 그것이 더 자극이 돼서 더 하고 싶어져요.

(s · b)

안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호흡도 잘 맞고~ 그래요.
예전에는 노래 부를 때 니가 먼저 나가니 내가 먼저 나가니 엇갈리고 그랬는데
안무를 같이 하면서 문가 모르게 호흡도 딱딱 맞고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
는 그런 기분감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c · h)

예전에는요~ 니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하다가요 막 틀리고 그랬는
데요 지금은요 노래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하다 보면은 자신의 할 일
에 대해서 깨닫게 되요.
같이 하다보면 호흡도 맞게 되요.

(h · n)

호흡이 잘 맞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맨날 안 맞다가 나중에 무언가 모르게 레
고 같은 거 안 맞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딱 맞으
면 마음이 하나가 되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전에는 소외된 느낌이 들었는데 같이 합창안무를 하면서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
해주고 자기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을 많이 익혔어요.

»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과
정을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극한 미적 쾌감과 일체감을 체험하게 된다. 즉, 합창무용을
통해 나만이 아닌 타인을 인식하고 상호간에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 합창무용은 대화와 협업이다

(s · b)

노래연습하면서 파트 연습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다보면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춤추다보면
서로 협동해야 하니까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c · h)

안무를 계속 맞춰보고 서로 물어보면서~모르는 부분 물어보고
박자 같은 것 물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연습해요
- 토요일 날 같은 날 밥 먹고 그러면서 같이 연습해요.

(h · n)

노래만 부를 때 보다 춤도 추고 그럴 때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안무²⁾ 를 더 하고 싶어져요.
재미있어요. 안무 하는거요.

(h · n)

개미도 같이 뭉치면 세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
여서 하면은 당당한 느낌이 들고 같이 하니까 도우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과
정을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극한 미적 쾌감과 일체감을 체험하게 된다. 즉, 합창무용을
통해 나만이 아닌 타인을 인식하고 상호간에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우리사회가 직면한 소통의 부재, 단절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소통 및 교감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소통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융합적 예술교육이 효과적이라
고 판단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협업collaboration으로서의 융합적 예술
교육의 하나로서 합창무용교육을 제시하였고, ‘어떻게 합창무용교육이 소통 및
교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마틴 부버의 ‘나-너 관계’ 사상에 입
각하여 합창무용교육이 행해지는 교육현장에서의 수행자들의 주관적 · 체험적
현상들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²⁾ 합창무용을 안무라고 표현 함

합창무용은 집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행위로서 끊임없이 서로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다. 합창무용은 집단이 함께 모여 한 호흡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기 때문에 상호간의 소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술 행위이다. 따라서 합창무용교육을 통하여 생각, 의견, 감정에 대한 ‘자기표현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 ‘상호교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는 곧 개개인의 진정한 인간적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소녀합창단을 대상으로 합창무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소통 및 교감 능력의 향상 여부를 살펴본 내용이지만, 학업경쟁으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사고에 젖은 어린이들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소통과 교감 능력이 커진 어린이들이 장차 사회를 이끄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 우리사회는 보다 갈등이 적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사회가 보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계층에 대하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소통 및 공감 능력이 건강한 공동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나아가서는 노년층, 새터민 그리고 다문화구성원 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 프로그램 중에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합창무용교육은 나이와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그 역할을 크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 |
|--------------|--|
| 강선보(2003). | 만남의 교육철학 , 서울: 원미사. |
| 김규태(1990). | 연극의 흐름 , 서울: 백운사. |
| 권은정(1996).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 문화관광부(2005). |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
| 이은경(2006). | "만남의 도덕교육적 함의-마틴 부버(Martin Buber)의 만남의 개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 정명희(1988).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상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 주희(2007),
 최홍규(2000),
 Aristoteles, 천병희(역, 1994),
 Germaine P, (1986) 양선희 (역, 1991),
 Martin B.(1977),
 김말복(2004),
- “연극 코러스의 변형된 기능과 형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 무용의 역사**, 서울: 삼신각.
- Ich und Du*, 표제명(역, 1990),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미래와무용” ,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id=pg2S&llid=Htzk&datanum=9639